

朴英熙의 文藝批評論 考察

정 영 호*

목 차

- | | |
|-----------|-------------|
| 1. 서 언 | 3. 내용 형식 논쟁 |
| 2. 신경향파시기 | 4. 결 론 |

1. 서 언

희월 박영희는 한국근대 비평사에서 끊임없는 자기변신과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론의 탐색과 심화를 추구하면서 독특한 비평세계를 이룩한 비평가이자 시인이었다. 초기의 백조시대의 유태주의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면서 짙은 사회주의 비평을 탐구하다가 과감한 전향선언으로 문단에 물의를 일으키고 후에 친일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희월 박영희는 -중략-시, 소설, 수필, 평론, 문학론의 각 장르에 걸쳐 언제나 주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문학예술 및 사상면에서 중요한 전환이나 위기 혹은 방향전환에 부딪칠 때마다, 한국문학사 및 사상사에서 일찌기 보기도 못한 성실성으로 감당했다는 점에서 그의 활동과 역량과 고뇌의 궤적을 탐구한다는 작업은 거의 한국현대문학사 및 사상사를 구명하는 작업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식, 1989, p. 19)

위의 인용문처럼 희월이 이토록 비중이 큰 평론가인가, 성실성으로 시대에

* 부산여자전문대학 교수

대응했는가, 하는 점 등이 문제시 되겠으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변신과 변화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실상 박영희는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평론을 위주로 해서 그의 이론의 전개과정과 적응력, 변화의 축 등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 우선 그의 평론활동을 몇 단계로서 나누어 보면 김윤식은 회월의 평론활동기간을 1924년에서 1934년까지의 10년으로 본 다음 첫째시기는 신경향파 시기로서 1924년에서 KAPF 결성인 1925년 8월까지를 전기로 보고 1926년말 이전을 후기로 나뉜다. 둘째시기는 목적의식기에 접어든 1927년 부터 <신간회> 해체전인 1930년까지이며, 세째시기는 1931에서 1934년의 전향선언으로 나뉘고 있다. (위의 책, p. 69)

이동민은 네 단계로 나누어 1. 신경향파 문학시기(1924, 5년전후) 2. 무산파 문학시기(1926년 전후) 3. 목적의식론 대두(1927, 8년전후) 4. 조직으로부터의 이탈(1929~1933년)로 논하고 있다. (이동민, 1976, p. 6~7)

이상의 견해를 참고로 해서 활동시기를 나누어 본다면 크게 신경향파~카프시기와 전향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세분하면 신경향파 시기, 내용형식 논쟁-목적의식론 시기, 전향-카프탈퇴 시기로 나누어 지겠다. 이러한 시기구분하에서 박영희의 평론활동을 세 단계로 나눈 다음, 그의 정신편력과 시대상황에 대한 변화, 이론의 심화와 변화 그리고 곡예사로서의 변신을 논하기로 하겠다. 특히 본고에서는 신경향파 시기와 목적의식론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비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전향 이후의 비평은 유보하기로 하겠다.

2. 신경향파 시기

회월이 백조시대를 벗어나서 사회주의 문학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4년 경으로 추정된다. 즉 1924년을 준비기라면 1925년은 제1차 투쟁기라고 할 수 있다. (김윤식, 1989, p. 70) 1923년말에 <개벽>지의 사원이 되면서, <체호프 희곡에 나타난 노서아 환멸기의 고통>, <자연주의에서 신이상에

기울어지려는 조선문단의 최근 경향》등을 발표하고 〈문학상으로 본 이광수〉를 통해 민족주의에 대한 투쟁도 개시한다.

이러한 회월의 변화에 대해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으나, 김윤식은 이에 대해 유희주의가 막연히 외발적인 도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사상도 외부의 객관적 정세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위의 책, p. 73)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민은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의 연관성을 논하면서 회월의 다음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조선사람의 중산계층은 날마다 가난하게 되며 직업없는 지식인의 무리는 지리에서 해매고 있으며, 한편으로 사상운동은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 경찰서와 감옥이 넘치도록 잡아갔으며 독립당원은 국경에서 일본경찰과 싸우며 국내에서도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쏘는 등 극도로 불안해 가는 조선의 현실 속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꿈의 문학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현대문학, 1959년 12월, p. 259)

위의 글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그 당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긴밀한 영향은 김기진의 변화로 보여진다. 김기진과 회월은 배재고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반에서 공부한 동창생이다. 그 당시에는 키도 비슷해서 한줄에 앉아 있었으며, 공부도 두사람 똑같이 5번째에 드는 정도였다. 김기진의 다음 고백을 살펴보자.

그런데 〈백조〉 3호가 나올때까지 박영희의 작품경향은 예술지상주의-낭만적 상징주의의 걸출을 벗어버리지 못한 경향이었다. -중략- 박영희의 사상을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마음먹고서 거의 날마다 박과 더불어 토론을 하였다. -중략- 이렇게 5, 6개월 지나는 사이에 그는 마침내 나와 똑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홍전선편, 김팔봉 문학전집 2, p. 527)

위의 회고약간 김기진의 자랑도 있어서 신빙성이 문제되나, 회월의 전향에는 김기진의 변화와 설득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사실 김기진이 품고있던 유희사관에 완전합의를 보여준 동지라고는 회월 한사람 뿐이었다. 월탄과 노작은 프로의 해방전선에 이르러서는 주저했던 것이다. (김기진, 한국문단측면사, 사상계, 1956, p. 135) 회월 자신도 자신이 유일한 사상적 동지였다고 술회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은 러시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4 韓國文學論叢 第11輯

당시 한국의 현실은 혁명전야에 있던 러시아의 그것과 같았다.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각성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기아와 부자유와 학대의 암흑기에서 러시아의 혁명의식을 내포한 작가들—투르게네프, 뎬스뎬에프스키, 체호프 등의 저서가 한국작가들에게 탐독되었던 것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사상계, p. 313)

이러한 사정은 김기진의 경우에도 비슷해서 그는 앙리 빠르바스의 <클라르테>를 읽고 로망롤랑과 바르바스의 연속된 논쟁문을 읽고 일본의 사회주의자 마생구의 영향을 받았다. 마생구는 독특한 러시아 문학관이 있었고 투르게네프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발간되었는데, 그는 자신도 씨를 뿌리는 사람중의 한사람이 되고자 마음먹는다. (홍정선편, 앞책, p. 99~100)

이 당시의 러시아와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민중예술운동과 노동문학론의 발전은 일단 <씨뿌리는 사람>으로 결실을 맺는다. 이 잡지는 프랑스 유학시절 앙리 바르바스의 클라르테운동에 공감한 小牧近江이 주도한 잡지로서 지식계급의 주목을 받았다. 2년도 못되는 사이에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으며, 계급예술론 지식계급론 사회주의운동으로서의 예술운동론을 위시한 정치와 문학의 문제를 중심문제로 삼음으로써 결국에는 정치우위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러시아의 기근구제를 둘러싼 꼬리끼와 라데그논쟁, 적색 프롤레트컬트 인터내셔널의 의의문제 등을 특집으로 보내면서 부르조아문단에 대해서도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平林初之軸, 靑野秀吉 등이 기성문단이나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대한 공격에 답하여 논전을 펼쳤다. 이들은 부르조아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 본체, 예술의 영원성, 예술의 초계급성 등의 관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하여 예술의 역사성 계급성의 초계급성 등의 관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하여 예술의 역사성 계급성의 문제를 천명했으며 무기로서의 예술의 의의를 처음으로 확립했다. (임규찬, 1987, p. 15~20)

한편 러시아에서는 프롤레트컬리뜨라는 단체가 창립되었는데, 보그다노프와 그의 협력자들이 1920년경에 약 40만의 노동자를 확보하면서 15종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8만 정도가 많은 문학과 예술훈련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였다. 대부분의 잡지는 <용광로>, <기적소리>, <프롤레

타리아문학〉 등 설득력있는 이름을 가졌다. 이 단체의 이론가들은 노동자계급이 세가지 길-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정부와 당의 조직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고집함으로써 제거되기에 이른다.

다른 문학활동으로서는 꾸즈니카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들은 베렐레뜨폴리트가 문학운동에서 벌인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넓은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 예술창조와 프로레타리아 작가조직 결성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떠났다고 선언했다. 1920년 5월 초 그들은 〈꾸즈니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 모스크바에서 1499명의 프로작가들을 모으는데 성공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프로레타리아 작가 모스크바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들의 중심사상은 산업노동자의 정신과 육체를 형성하는 프로노동의 본질과 과정에 대한 찬양이었다. (게르만 세르게이, 김민인역, 1989, p 21~40 참조)

이상의 일본에서의 프로문학의 발흥과 전개,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본격적인 프로문학의 창달에 자극받은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김기진이 이러한 일본의 분위기를 재빨리 알아 채고서는 이를 한국에 전파하려고 마음을 먹게되고 그의 첫 동지가 바로 회원이다.

이러한 신경향파의 발생은 크게 보아서는 3.1 운동의 좌절과 그를 통한 민중의 성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3.1 운동의 실패는 소자산계급의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민족부르조아 및 소자산계급의 개량성을 드러냄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이 민중에게로 이전된 역사적 사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경향파의 문학의 하나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현실부정의 의식으로 출발한 현실개혁의 방향으로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편, 카프문학운동, 1989, p. 15)

신경향파 비평가들에게 있어서 생활이란 조선의 현실생활이다. 민족전체가 빠져있는 비참한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생활이다. 그들의 생활이 작품을 결정한다고 할 때 주안점은 작품이 아니라 생활에 놓여있다. (위의 책, p. 21) 이러한 맥락하에서 이해되는 것이 회원의 〈고민문학의 필연성〉이라는 글이다.

문학은 그 시대에 처한 민족의 생활이 진화적 의식을 무의식중에 포함하여 가지고 그 이상을 욕구하려는 한 수단이며, -중략-민중의 생활이 유린당하고

부자유하고 불완전한 제도에서 압박받고 신음할때 그들의 문학은 폭풍같이
우전같이 강렬하고 발랄한 활동을 그 가치에서 보게되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은 그 시대의 민족의 생활 특히 민중의 생활의 표현이라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팔봉의 글에서도 나타나는 바, 그들은 60년 전 러시아에서 지식계급의 자녀가 우 나드로를 부르짖은 것을 본받아서 민중 속으로 용진하라고 외친다.

조선은 정치적으로 파멸을 당한지도 벌써 오래므로 민족적으로 궁경에 있는 지가 오래되었다. 그것과 한가지로 제일 주요한 문제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산당하고 사지에서 미로하는 것이 사실이다. 얼른 말하면 조선에게는 백의의 무산자와 그 계급에 있는 민중의 생활은

위의 논리가 바로 그들의 주장하는 민족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이다. 즉 한 국민족 전체가 무산자계급에 속하기에 계급해방=민족해방이다. 팔봉도 “일본의 혁신세력과 함께 약속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후 조선민족이 해방되어 자주독립하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는 방도로서 사회주의 문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기진, 우리가 걸어온 30년대, 사상계, 1958, p. 234) 이러한 생각에서 회월은 “만사가 불여의한 궁경을 갖게된 이 시대를 열른 고민기라고 하였고, 그 안에 있는 생활을 고민기의 생활이라 하고 싶다”라고 논한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5항목으로 요약해서 언급하기를 1. 고민기에는 우울, 암흑뿐이다. 2. 우울은 회의로 변하고 암흑은 곧 모든 것을 부정한다. 3. 회의와 부정의 적극적 활동은 암흑을 파괴하는 것이다. 4. 적극적 활동은 사회생활을 진화케 하며, 소극적 활동은 사회생활의 진화를 상하게 한다. 5. 문학활동의 가치 문제는 이 적극적 활동에 원인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에 우선 회월이 백조시대의 활동을 소극적 활동으로 규정짓고 있는 점이 눈에 뜨인다. 이 글에 대해서 “문학은 생활에 의해 결정되면서도 생활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편, 1989, p. 22)

또한 이동민도 회월이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밖에 관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현실이라는 말의 개념도 불분명하다고 논한 다음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에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한다. (이동민, 1976, p. 11)

여기서 한가지 짚고 가야 할 문제는 팔봉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하는 편지에서 러시아의 체르니셰프스키의 정치소설인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하는 글을 인용하면서 조선의 지식인은 모름지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크메토프와 같이 이 땅에 씨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 이 소설은 러시아 허무주의의 일종의 교리 문답서로서 혁명적 인텔리겐차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금욕주의적 소설이며 러시아 허무주의를 위한 근엄한 생활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작가의 사회주의는 일부는 나로드니키적이며 또 일부는 공산주의의 선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니코라이 베르자예프, 1981, p. 51) 이런 면에서 볼 때 김기진은 이 작가를 허무주의자로 보다는 나로드니키적인 인물로 인식했으며 회월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내용 형식논쟁 - 목적의식론 시기

신경향파에서 출발한 카프문학은 서서히 정치투쟁적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는 당대의 정치변화와 특히 당해 민족해방투쟁의 우위를 잡고 있었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러한 방향전환을 시도한 핵심적인 문서인 “정우회선언”(1926년 11월)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선언 중에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종래의 경제투쟁 형태로부터 정치투쟁 형태로의 전환요구”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의 의미는 실제로는 종래에 이루어진 지식인 중심의 사상씨클운동을 청산하고 전면적인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역사문제연구소편, 1989, p. 28~29) 이상의 한국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회월의 방향전환을 살펴보자. 회월이 표면적으로 목적의식을 내세운 것은 실상 팔봉과의 논쟁이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팔봉과의 논쟁은 단순한 문학원론상의 논쟁이 아니라 일종의 내부의 세력다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논쟁은 1926년 12월 <조선지광>에서 시작되어 1927년 <조선문단> 2월호에

끝나는 짝막한 기간이었다. 이전에 1925년 2월 팔봉이 형식적인 측면을 거론하여 회월의 〈전투〉를 평했을 때에는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1926년말 동일한 문제로 논쟁이 붙었음을 상기할 때에는 몇가지 외적인 문제가 놓여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 홍정선은 3항목을 들고 있다. 초기에는 팔봉이 수필체 평론을 통하여 신경향파를 이끌어 왔으나 1926년부터는 회월의 활동이 팔봉에 비길만큼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카프가 조직의 구속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외부정세의 변화이다. (임현영, 1986, p. 72)

이러한 외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논쟁을 고찰해 보자. 논쟁의 발단은 팔봉이 회월의 작품을 놓고서 비판한 데서 시작된다. 회월의 단편 〈철야〉에 대해서 팔봉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나선다.

……그 결과 이 일편은 소설이 아니요, 계급의식, 계급투쟁의 개념에 대한 추상적 설명에 시종하고 일언일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소설이란 한개의 건축이다. 기둥도 없이 석까래도 없이 붉은 지붕만 입혀 놓은 건축도 있는가? …… (김팔봉, 문예시평, 조선지광 62호)

이 글의 중요성에 대해 김윤식은 프로문학 내부 지도자끼리의 첫대립, 팔봉의 비판이 프로문학 전반의 급소에 해당된다는 점, 프로문예의 방향전환을 준비하는 내적 모순이 표면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김윤식, 1989, p. 80)

또한 이는 팔봉의 비평 스타일이 내용소개와 형식분석이라는 이분법으로 작품평을 해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당연한 논리의 전개로 보여진다. 팔봉의 작품평은 김동인, 현진건 등을 평할 때에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회월은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라는 반박문을 들고 나온다. 여기서 회월은 “프로레타리아의 전 문화가 한 건축물이라면 프로의 예술은 그 구성물 중의 하나”임을 논한 다음 소설로서 완전한 건축물을 만들 시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밝힌다. 진정한 프로비평가는 “계급××와 ×××에 대하여 작품의 적극적 전개를 위하여 지시하며 혹은 책하는 것이므로 팔봉의 태도는 부르조아 비평가의 태도, 즉 예술가적 비평가로 낙인 찍는다.

그런후 일본의 비평가 靑野秀吉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앞에 사는 문예비평가에는 두가지의 당당한 길이 있다. 하나는 내재적 비평이고, 하나는 이것에 대응해서 외재적 비평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략— 또 한가지 외재적 비평이라는 것은 이리하다. 나타난 예술 작품을 일개의 사회현상으로서 나타난 예술가를 일개의 사회적 존재로서 그 현상, 그 존재의 사회적 의의를 결정하는 비평이니, 이것을 전 것과 대립해서 문화사적 비평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회월이 문학을 간단히 이분화했으며 트로츠키가 말하는 문예비평의 사회적 방법에 도달하려 하였다고 논한다. (위의 책, p. 81) 靑野秀吉의 논문에 힘입어 외재비평론을 수입한 회월은 “자연생장으로부터 목적의식성으로”라는 목적의식론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靑野秀吉의 논리를 살펴보자. 그는 <문예전선>에 <예술이 아닌 예술>을 발표 예술다운 예술에 대한 문단적 편견을 배척하고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가 계급투쟁의 장이며, 따라서 유일하게 올바른 생활방식은 노동계급의 해방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의 문학이 사회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해방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유명한 목적의식론이 확립되었다. 그는 자연발생적 프로문학과 프로문학운동을 구별했는데, 프로계급의 투쟁목적이라는 목적의식을 심고, 이로써 프로계급의 전계급운동에 참여하는 운동, 그것이 프로문학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임규찬, 1987, p. 48~49 참조)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은 프로문학에 사회주의적 목적의식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주의적 프로문학이 보여준 인텔리겐차적 요소의 혼입—거기에는 부르조아적, 뿌띠부르조아적, 아니면 봉건적인 요소가 혼입되어 있다—을 비평하고 정리하여 사회주의 의식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그것이 제2의 투쟁기에 들어선 프로문학운동의 임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의 책, p. 78)

이에 대한 김기진의 논리를 살펴보자. 김기진은 <무산문예작품과 무산문예비평>이라는 글에서 회월에게 답하고 있다. 우선 그는 자신과 회월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입지점에 있다고 논한 다음 논쟁의 성질이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런후, 프로문예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부르조아 문학의 발달의

결과 속에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부르조아문학의 우수한 기교, 표현, 형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문학은 정서의 전염이라는 역할을 행할 뿐이기에 선전을 위한 소설, 시따위는 성립되지 않는 일종의 기계론적 반영론은 거절한다고 밝히면서 회월의 선전문학을 일축에 반발한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문학론은 내재적 비평을 취입한 외재적 비평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러시아의 형식주의자 로카체프스키의 논리를 인용하면서 형식파와 마르크스파의 종합, 협력을 주장한다. 그런 후 회월에게 통렬한 일격을 가한다.

절망의 폭발이 골자로 된 소설, 또는 복수가 곧 투쟁으로 된 소설은 진정한 프로문학은 아니라고. 그러므로 만두장사를 죽이고 감옥으로 가는 것을 이제 백보를 양보하여 군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군의 이 작품에서 $\times\times\times$ 적 정신, 집단적 정신의 발양을 보지 못한다. 이 의미에 있어서 <지옥 순례>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비평에 프로문예가로서 불선명한 점이 있다면 동지들 앞에서 고개숙여 사죄하겠다는 비굴한 사죄의 말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김복진과 김성태 등 주의 동지들의 회유와 압력에 못이 기어 자진 패배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한 회월의 답변을 살펴보자. 회월은 <문학비평의 형식파와 마르크스주의>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 글에서 러시아의 형식파와 맑스파와의 논쟁을 길게 소개하고 있다. 우선 형식파의 쉬그로프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맑스파 트로츠키의 논리를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형식파가 문학의 과학적 영역인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하여, 맑스파는 문학이 사회적 의의를 알기 위해 독유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정리한다.

그런 후 다시 브론스키와 부하린의 견해를 대비해서 논하나 이 글의 마무리는 레제비치의 계급주의의 확인으로써 끝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경우 점점 문학의 사회적 의의는 체계를 세워간다고 주장한다. 실상 이 글의 성격을 밝힌다면 김기진과 회월자신의 입장을 빗대어 한 것이다. 즉 팔봉의 논리는 형식파의 그것이고 자신은 맑스파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글이 외에도 회월은 <예술의 형식과 내용의 합목적성>이든가 루나찰스키의 <실증실학의 기초>, <자본론입문> 등의 번역 및 입문서를 쓰기도 했다.

〈예술의 형식과 내용의 함목적성〉에서는 러시아의 플레하노프와 루나찰스키의 소론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전개했는데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사회적, 경제적 하층구조 위에서 있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사회의 경제적 기초의 변동됨에 따라서 하층구조인 이 의식이 변동하는 것이다. -중략- 계급의식의 내용은 즉 계급사회에 관한 일정한 목적성에 합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적 프로의 계급적 투쟁생활은 투쟁의식의 예술적 내용을 규정하고 그러므로 형식의 규정은 역시 이 내용의 성질역할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쟁에 대해서 김윤식은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팔봉과 회월의 이 논쟁은 차원이 다른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며 둘째 팔봉의 논리 포기로서 회월이 부전승을 거둔 점 등을 들면서 팔봉의 소론이 솔직한 팔봉 자신의 느낌인 반면에 회월은 러시아와 일본의 계급문학 이론에 직결되었다고 본다. (김윤식, 1989, p. 83~4) 한편 김시태도 회월이론의 배경으로 일본의 목적의식론이며, 러시아의 루나찰스키의 형식 제일주의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논쟁의 의의는 다음 자리에 전개된 목적이식론과 함께 방향전환기의 프로문학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논한다. (김시태, 1977, pp. 71~4)

러시아에서는 1922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문학그룹 10월이 결성된다. 이 단체는 “프로문학에서 공산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조직적으로 전 러시아와 모스크바 프로작가협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처음의 구성인원은 15명의 작가, 시인, 비평가였다. 1923년 선언내용을 보면 10월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철저한 프로전위의 한 부분임을 명백히 하면서, 이 전위가 유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프로의 거대한 대중 속으로 체계적이고 감동적인 깊은 선전의 보급을 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렐레비치는 문학이 계급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경제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추론을 전개했다. 그는 선전매체로서 문학을 이용하려고 생각했다. 그들은 프로작품의 형식은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고 새롭게 부상하는 계급의 문학내용이 형식보다도 우선한다고 보았다. 10월의 업적은 1922~5년 사이에 단 하나의 조직과 이데오르기토대위에서 프로문학의 힘을 결집시키려는 프로그램의 실천방향으로 잡았다

는 것이다. (게르만세르게이, 김민인역, 1989, pp. 45~59) 이후 브론스 파수꾼과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브론스키는 예술은 삶의 인식이다를 근본개념으로 삼으면서 예술은 이미지에 대한 감각적 관조와 종합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창조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유품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직관은 독립적이고 탁월한 것으로서 의식과 직관사이에 부조화가 생겼다. 창조적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술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원초적 인상이 이성과 뒤섞이지 않도록 양자를 분리해서 예술가는 세계에 대한 순수한 유아적 인상을 획득해야 한다. (위의 책, p. 62~4) 브론스키에게 10월의 이론은 완전히 편협한 계급주의와 편협한 공리적 주관주의에 물든 것으로 보였다. 반면 10월은 브론스키를 계급의 적으로 간주했다.

다른 사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RAPF의 내부에서도 이른바 좌파라고 불리는 단체인 LEF가 1923년 조직되었다. 그들은 창작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허구는 이제 인민의 아편이 되지만 할 뿐이므로 사실의 문학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가의 역할은 정교한 생산물 속으로 숨쳐 있게 삶의 재료를 떠내는 장인의 역할로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예술 기교에 정통해야 하며 형식의 방법은 예술 연구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이에 대해 파수꾼들은 기계의 신격화, 현실의 피상적 묘사, 형식주의,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무적인 태도로 해석한 속물화에 대해서 비판했다. (위의 책, p. 113)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회월의 논조의 의미가 파악된다. 회월은 팔봉을 러시아의 형식과 내지는 좌파로 몰아 세워서 자신의 승리를 획득하려고 했고 위험한 브론스키즘으로 비판했다. 실상은 팔봉의 관점과 러시아 형식주의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형식주의는 일반적으로 1915, 1916을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데 로만야콥슨, 보가뜨일레프 등이 소속되어 있던 <모스크바 언어학씨클>의 창립 및 베제르 부르크의 <시학언어 연구회>의 창립이 형식주의의 시초가 된다. 이론적 면에서는 쉬골로프스키의 저술 <언어의 부활>이 출간된 1911년이다. 그는 1916에 <과정으로서의 예술>이라는 논저를 간행한다. 여기서 그는 예술의 과제를 자

동화된 지각메카니즘에 대한 파괴로 규정하거나와 그러한 파괴의 결과로 정신세계나 물리세계는 재인식될 뿐만 아니라 체험되거나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홀거지이젤, 1988, p. 129) 이러한 형식파의 주장을 팔봉의 소론과 비교해 볼 때에 실상 많은 차이가 나며, 팔봉의 견해는 온전한 절충파의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 논쟁이후에 회월은 자신의 이론을 목적문학론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팔봉의 어중중한 논리를 비판한 이론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계급의 자연생장적 현실로부터 목적의식에 이르게하는 것이니 문예운동에 있어서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그러하다. -중략- 계급의식을 고양하면 계급문학은 경제투쟁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있어서 자연생장적 문학에서 목적의식적 문학으로 과장한다는 것이 지금 필연한 현실이다. (박영희, 문예운동의 방향전환)

회월의 이러한 방향전환에 대하여 이는 일본의 복본 또는 청야의 이론에 닿아 있으며, 사회주의의식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철저화를 문학운동 전체에 요구한 것이다. 김시태는 회월의 현실인식이 피상적인 수준이어서 도식적이며 추상적인 사고의 패턴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시태, 1977, p. 76~7) 김윤식도 이 글이 일본의 청야계열의 <자연생장과 목적의식 재론>에 그 논거가 닿아 있다고 본 다음 이 글로서 회월은 1927에서 1930년까지 카프의 실질적인 이론상의 지도자가 된다고 보았다. 허나 회월의 한계는 문학이 정치운동의 보충적 임무에 그쳐야 하고 정치투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라고 보았다. 일본측 계급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치투쟁=문학투쟁이라는 공식주의에 동조할 수 없었다. 이 점 때문에 회월은 임화 중심의 소장파 볼셰비키들에 의해 규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회월은 오히려 문학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팔봉과 같은 자유주의가 잠복해 있었다고 보았다. (김윤식, 1989, p. 75~7)

4. 결 론

앞에서 회월의 비평적 전개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는 바, 대략 3

단계로 보아서 그 시기마다의 이론의 기반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기로서는 초기 파스큐라 시대부터 신경향파 시기로 이어지는 초기 프로비평시대로서 이때의 양상은 백조로부터의 전환과 카프결성시기로 보여진다. 이때 특히 회월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팔봉의 영향을 떼어놓을 수 없다. 팔봉의 유일한 동지로서 회월은 카프의 회원이 된다.

두번째 시기로서는 팔봉과의 내용, 형식논쟁과 이어서 전개되는 목적문학론으로 이어진다. 이 논쟁에서 회월은 팔봉을 형식주의자로 낙인찍으면서 과격하게 밀어 부친다. 궁지에 몰린 팔봉은 백기를 들면서 자신의 소신은 굽히지 않은 채 동지들 앞에서 사죄의 용서를 구걸한다. 이러한 팔봉의 패배는 문학주의의 패배이자 조직면에서 이미 회월이 카프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미 김복진과 회월, 김성태들이 카프를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비밀리에 공산당과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 시기로서 회월의 전향시기이다. 회월은 동경 제3전선파로부터 온 전주의로 몰리고 있었고, 회월의 하수인인 임화는 이제 회월의 영역을 벗어날 만큼 커져 있었다. 그들은 회월의 문학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면서 문학투쟁을 정치투쟁에 예속시킬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회월은 백조시대의 문학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점차 이단으로 인식된다. 시대적 상황도 어려워져서 일본의 탄압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일본의 나프의 탄압과 해체는 카프에도 영향을 주어 박영희로 하여금 전향성명서를 내게 만든다. 이 성명서는 일종의 일본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회월의 필사적인 자구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여서 회월은 1년정도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이상이 회월의 간략한 비평적 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기간을 통해서 회월이 내보인 것은 문학주의와 계급주의의 양면적 대립상이라고 하겠다. 이는 회월이 이 양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복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행하였던 뼈아픈 파오의 연속으로 보여진다. 김윤식도 회월이 〈백조〉유미주의와 계급사상에서 빚어지는 사회과학이라는 양면성이 회월의 전 생애를 결정하였는데 문학주의와 과학주의의 대립양상만 보인 것으로 논하고 있다. (김윤식, 1989, p. 128) 또한 이는 회월이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할 만한 이

론적 성숙과 문학적 인식에 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끊임없는 시대적 변천에 무방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오류를 회월은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그가 문학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과격한 제3전선파에 합류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계급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회월은 중산계급의 엄격한 가풍속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회월의 아버지는 시골의 땅을 팔아 도시에 올라와서 돈놀이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실한 생활인이었다. 회월 또한 그의 부친을 닮아서 건실한 생활적인 면이 많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그의 모친은 신앙심이 두터운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실상 건실한 인물이 사회주의의 물결에 휩쓸리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더구나 회월같은 현실주의자가 사회주의에 물드는 것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회월이 일본의 압력이 강화되자 재빨리 색깔을 바꾼 것은 그의 명민한 총명함과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반면 임화, 팔봉 등의 비주류는 우직한 타입으로 중류계층이하의 계급적 인물로 보인다. 조명희가 끝까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음은 이러한 예로 이해될 것이다.

다른 문제점을 든다면 회월의 문학이론이나 비평의 수준은 사실상 당대에 최고의 수준에 육박했으며, 이는 회월의 총명함과 학문적인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그 자신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유물철학이나 소위 맑스의 자본론에 대하여는 거진 칠팔년의 세월을 허비 하면서 나로서는 대개 연구하여 본 것이다. (박영희, <독방>)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월의 공부는 꽤 깊이가 있고 학문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되는 바 이는 회월이 카프의 이론가로서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팔봉이 감상적이고 감상적이고 구체적인 비평가라고 한다면 반면 회월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비평가로 볼 수 있다. 내용-형식 논쟁에서 팔봉이 패배한 것은 여러가지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회월의 선명한 이론앞에 무릎을 꿇었다고도 하겠다.

하지만 회월의 이론은 지나치게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생경하게 수입한

면이 두드러져서 이것이 큰 결점으로 남는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내용-형식 논쟁의 경우를 무리하게 팔봉의 경우로 몰아부쳐서 팔봉을 형식파로 비판한다. 이제와서 검토해 보면은 알겠지만 팔봉의 소론은 러시아의 형식론자들의 이론의 모방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포했음 따름이었으며, 주관적인 비난으로 그친감이 든다. 이러한 팔봉과의 논쟁을 통해서나 그 이후의 목적주의 문학론으로 돌아설 때의 이론을 살펴 보아도 일본과 러시아의 추수라고 이해되는 면이 많이 눈에 띄인다. 이는 물론 회월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갈탄 체제내에서 살았던 지성인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지나 회월의 경우는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면속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갖고 있는 국제성 자체가 그러했기에 자연히 외국추수로 가게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없는 지성이기에 쉽게 친일문학쪽으로 돌아서는 과오를 범한 것으로 인식된다. 회월이 제3전선파에게 강조했던 조선의 현실을 보아라 하는 당부는 어찌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절실히 해당되는 약점이라 하겠다. 과연 회월은 조선의 현실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게르만 세르게이, <소비에트 문학이론>, 김민인 역, 열린 책, 1989.
 게오르기 프리들렌제르, <리얼리즘의 시학>, 이항재 역, 열린 책들, 1986.
 김시태, <식민지 시대의 비평문학>, 이우, 1982.
 _____, <한국프로문학비평연구>, 동국대 학원, 1977.
 김윤식, <박영희 연구>, 열음사, 1989.
 김팔봉, <김팔봉 문학전집>, 문학과 지성사, 1988.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러시아 지성사>, 종로서적, 1980.
 백철, <문학자서전>, 박영사, 1975.
 소련과학 아카데미편,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의 기초이론>, 신승엽의 역, 1988.

- 쉬체르비나, 〈소련현대문학 비평〉, 한겨레, 1986.
역사문제 연구소, 〈카프문학 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89.
이동민, 〈박영희 비평의 사적연구〉, 연세대학원, 1976.
이선영외, 〈한국근대문학 비평사 연구〉, 세계, 1989.
임규찬, 〈일본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 1963.
임현영, 〈한국 근대비평사의 쟁점〉, 동성사, 1986.
홀거 지이젤, 〈소비에트 문학이론〉, 정재경 역, 연구사, 1988.